

제5회 오키나와 정상회의 기념 심포지엄

에이즈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대응

글_ 신수린 · 본회 사업부장

필자는 2005년 6월 29일과 30일에 일본 외무성과 아시아·태평양에이즈국제기금기구와 JCIE(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가 공동 개최한 Commemorative Symposium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Okinawa Summit”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 및 연구에 참석한 나라는 아시아 지역의 12개국 대표였다. 참석한 나라는 호주,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과 베트남이었다.

아태 12개국의 에이즈 실태 공유한 회의

이 회의는 2000년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G8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워크숍으로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실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고 발표하는 회의였다. 지난 1월부터 이 회의에서 발표할 12개국의 참석자들은 각국의 에이즈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였고, 필자도 “한국의 에이즈 현황”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6월 30일의 심포지엄에서는 고이즈미 현 일본수상이 격려사를 하면서 The Global fund to fight to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미화 500만 불을 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주후 스코틀랜드에서 열릴 G8 정상회담에서 미국 등 선진 8개국 정상들이 발표할 각국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 기부 내용 중 일본의 기부금을 미리 발표하는 내용이었다.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The Global fund to fight to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직원은 일본이 약 천만 불 정도의 기부를 기대했다고 살짝 귀띔해 주었다. 선진 8개국에서 기부한 돈은 WHO가 목표하는 3 by 5”를 성취하고 각종 에이즈 예방에 사용될 돈이다.

필자는 이 공식석상에서 왜 한국의 에이즈 유병률이 낮은지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하였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에이

즈와 관련된 많은 문제와 풀어 가야할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혈액공급, 무료 항바이러스 제제 공급과 적은 마약사용률(세계 평균 마약 사용률 4.7%, 한국 0.7%)과 주사 바늘 구입이 자유로운 이유로 낮은 유행률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캄보디아, 감염인구의 사망으로 유행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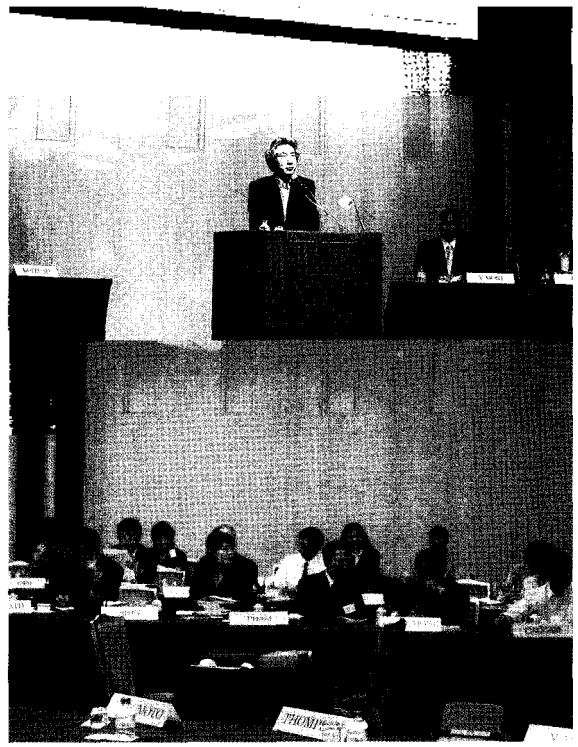
여러 국가의 발표가 있었고, 각국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나라 중 한 국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였다. 아시아에서 에이즈를 성공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로 캄보디아와 태국을 평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1991년에 처음 HIV 양성률이 발견된 이후에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1997년의 유행률은 3.3%(한국은 0.1%)였으나 2002년에 들면서 그 유행률은 2.6%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유행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감염인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유행률의 저하는 에이즈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대만, 말레이시아 HIV 감염인 중 마약사용자 급증

워크숍과 심포지엄에서 가장 관심을 끈 주제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의 마약 사용자 그룹에서의 갑작스런 HIV 신규 감염 증가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아주 완만한 유행률을 보이던 증가하던 HIV 양성 판정자가 2004년도에 그 전해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마약 사용자 그룹이 2001년에 새로 발견된 양성판정자의 36%를 차지하는 것이며 2003년의 마약 사용자 그룹에서의 신규발생률에 비해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의 효과적인 중재 및 분석에 대한 논의와 정보공유 및 경험을 나누는 토론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1) 3 by 5 : WHO가 제안한 사업으로 2005년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3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제를 공급하자는 목표 아래 수행되어지는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호주, 마약사용자에게 고위험행동 감소 프로그램 성공

호주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조절해온 나라로 알려져 있다. 신규 감염의 85%가 성접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이즈 예방의 성공요인을 마약 사용자 그룹에서의 바늘과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harm reduction의 효과적인 적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여성과 동성애자 그룹에서의 지도자들이 에이즈 예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주정부도 유행초기부터 harm reduction이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의회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에이즈 예방에 힘을 써온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숙제로 여기고 있는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전략에 대한 논의가 적었으며, 감염인의 재활이나 인권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적었던 부분이였다. 반면에 자랑스러웠던 부분은 우리나라도 OECD국가로서 The Global fund to fight to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50만 불을 기부하고 제3세계에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감염인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의 하나라는 것이였다.